



초혁신·모두의 AI농업 실현을 위한 '국가 농업AX플랫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우선협상대상자로 전라남도 컨소시엄 선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AI·로봇을 활용하여 누구나 쉽게 전문적으로 농업을 경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국가 농업 AX플랫폼(이하 'AX플랫폼')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전라남도 컨소시엄'을 선정하였다.

이번 AX플랫폼 민간참여자 공모는 재배업과 축산업 분야를 대상으로 지난 2월 5일부터 4월 3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심의 위원단의 서면·발표 평가 및 현장 평가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 1개소가 최종 선정되었다. 농식품부는 실시협약을 통해 세부 사항을 조율한 다음, 올해 말까지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완료할 계획이다.

전라남도 컨소시엄은 농기계 전문기업인 대동을 대표사로 하여 전라남도, 무안군, LG CNS, 대영지에스, 아트팜영농조합법인 등으로 구성되었다. 사업에 참여한 지방정부는 부지를 확보·제공하고 기술기업은 고도화된 AI 영농 모델·솔루션 개발과 함께 첨단 농기계를 활용한 농작업 서비스를 구축한다. 농업법인은 이번 사업에서 조성될 21.6ha의 최첨단 AI 온실에서 작물 생산을 담당하고 현장에서 모델을 검증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이시혜 농산업혁신정책관은 “국가 농업AX플랫폼을 통해 우리 농업이 신속하게 AI 전환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의 마중물 출자와 더불어 사업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전방위 지원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농산업혁신정책관	책임자	과 장	이덕민 (044-201-2411)
	농업·농촌 AI 전환 추진단	담당자	사무관	박찬원 (044-201-2713)